

회 의 록

회의명		2023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일 시		2023. 10. 10.(화) 15:00 ~ 16: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				
안건		- [제9호]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 - 기타안건: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 (투표 반영 비율 논의 방식)				
회의결과		- [제9호] 원안 수용 - 기타안건: 구성원 대표 각 1명이 참여하여 논의 (배석자 각 2명 이내 - 발언권 없음)				
참 석 현 황	참석 대상자	22명	위임 내역	위임장 제출: 4명 이왕록, 최인용, 안선민, 전득수	참석자	참석자: 9명 강석구,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김필형, 김채현, 이유진
	참석자	13명				
	불참자	9명	불참 내역	최인호, 서연주, 노수림, 이병채, 김운용, 김수일, 최호정, 김 담, 노현주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 4명 포함 13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3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의안 제9호</div> <div>○ 의장(○○○): 제9호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 심의하겠음.</div> <div>○ 교무과장(○○○): 회의 자료에 따라, 제9호 안건 제안 설명.</div> <div>○ 의장(○○○): 다른 의견 없으면, 제9호 안건 충남대학교 일부 개정 학칙(안)은 원안대로 수용되었음을 선언함.</div> <div>■ 기타 논의사항</div> <div>○ 의장(○○○):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 중 투표 반영 비율 논의를 위한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음. 지난 회의 때 각 직능 대표들이 모여서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하는 것까지 논의되었음.</div>						

각 직능단체에서 몇 명이 회의 참여할지를 추가 논의해야 함.

- 의원(○○○): 계속 만나고 모이면서 이견조율은 가능할 것이고, 1명인지 2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함.
- 의장(○○○):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서 1명이든 2명이든 인원이 결정되면 따를 수 있는지?
- 의원(○○○): 따르겠음.
- 의원(○○○): 학생은 직능단체별로 같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1명이든 2명이든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음.
- 의원(○○○): 교수회에서 교무과를 통해 4명으로 회의하자고 제안했음. ○○○ 의원이 직원끼리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절했음. '4명으로 하자, 안 하자'로 거절한 것이 아님. 대학평의원회에서 4명, 8명, 12명 등으로 협의가 되어야지, ○○○ 의원이 거절했다고 교수회에서 보이콧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지난 회의 때 외부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본인은 대학별로 쿼터제를 제안했었고, ○○○ 의원은 4명으로 회의하자고 제안만 하고 끝났음. 어떠한 의결도 하지 않았음. 의장이 교수 편을 안 들어,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사퇴 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평의원회라는 민주적인 합의체를 부정하는 행동임. ○○○ 의원은 4명이 회의하자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함.
- 의장(○○○): 교수 쪽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견 취합은 어렵고, 3개의 직능단체의 통일된 안에 대한 의견 요청함. 대표라는 말은 1명이라는 의미임. 직원도 하나의 의견을 내기로 했고, 직능단체별로 2명이 나온다고 해서 2명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1개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복수의 대표를 선택한다면 몇 명인지 오늘 정해야 함. 불참한 의원은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내용을 전달할 것임. ○○○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시작을 1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직능단체별로 누가 나와도 상관없지만, 교대로 나오는 것은 안 됨. 그렇게 되면 의견이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
- 의원(○○○): 지금까지 총장 선거를 많이 했지만, 처음부터 1명씩 나온 적은 없었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축약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많은 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왔었음. 다양한 주장 간의

입장 차를 조금씩 좁히면서 최종적으로 모여지면 각 대표 한 명씩만 만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을 거쳐왔음. 시작부터 4인 대표만 참석했다면 부담감 때문에 양보나 협의가 쉽지 않았을 것임. 직전 총장 선거 때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는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조교 1명, 동문 1명으로 시작했음. 동수가 아니어도 불만이 없었음. 직능단체별 1명 참석은 협의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함. 1차 회의 때, 합의되지 못한다면 직능단체별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4명의 대표가 만나야 함.

- 의장(○○○): 복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평의원 중 최소인원 조교 2명을 기준으로 직능단체별 2명씩 총 8명 모이자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모두 동의함)

- 의원(○○○): 직원 평의원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 평의원끼리는 이견조율을 통해 한목소리로 나갈 것임. 한 명씩만 대표로 나가면 부담이 크고, 대개 4자 회의를 할 경우도 참관인들이 있음. 정회 때 합의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필요함.
- 교무처장(○○○): 복수의 인원들이 모이면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첫 회의는 직능단체별로 1명씩 만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1명을 더 추가하자고 의견을 내는 것을 제안함.
- 의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안을 낼 때 직원은 단체별로 세 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서 교수들은 직원들끼리의 이견조율이 힘들다고 본 것임. 투표 반영 비율을 논의할 때는 직원들 내부적으로 합의된 1개의 의견을 내야 함.
- 의원(○○○): 비공식 회의 세 번을 거칠 때, 직원은 두 번 회의에서 어떠한 구성원도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냈음. 중간에 나간 사람은 교수회장임. 비공개회의는 거부함. 교수회에서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협의 없이 회의에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회의 때 직원 단체별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오게 되어서, 계속 오해받고 있음.
- 의장(○○○): 오늘 교수 의원들은 의장을 제외하고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음. 회의 시작은 해야 하고, 교수 의원들을 이 자리에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의장과 교무처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함. 교무처장의 중재안인 회의 시작은 1명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 의원(○○○):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왜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학교 발전을 위하여 같이 논의하자고 하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자고 단독방에서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보이콧하고 있음. 규정에 맞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함.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5조를 보면 총장 선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심의·의결 기능에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음. 총장 선출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직능단체별로 2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을 만들어야 함. 예전처럼 교원 5명, 비교원 6명으로 교수회에서 요구하면 받아들일 각오로 이 자리에 왔는데 아예 보이콧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됨.
- 교무처장(○○○): 다양한 이견조율 과정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가 결정할 것임. 교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직능단체별 1명씩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었음.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었으나, 충분히 어필은 했었음. 일단 각 구성원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함.
- 의장(○○○): 교수회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교수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해줄 수 있느냐는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임. 감정적인 문제들은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 때부터 시작되었음. 중립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교수회의 입장, 교수 의원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불편함.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논의를 위해 테이블 앞에 앉아야 하는 사람은 1명임. 배석하는 사람도 4명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교무처장이나, 대학평의원회 의장도 참여하겠음. 총장 선출에 대한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가장 불편했음. 두 번째로 본인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매우 불편했음. 4명 대표 회의조차 거절할 경우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음.
- 의원(○○○): 정회 요청함.
- (정회)
- 의원(○○○): 직능단체별로 1명씩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나, 발언권이 없는 참관인은 2명 이내로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의장(○○○): 참관인은 대표와 정회 때 협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음. 참관인은 바뀔 수 있으나, 대표는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방식으로 하겠음. 세부 일정은 교무처 주관으로 조율해서 정하겠음.

- 교무처장(○○○): 1명의 대표와 발언권이 없는 배석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직능 단체별로 1개의 의견 제시를 제안함.
- 의원(○○○): 대표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해서 배석 인원이 필요함.
- 의장(○○○):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직능단체별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고인 참석의 개념으로 봐야 함.
- 교무과장(○○○): 이전 선거에서 TF 운영 때, 합의 단계에서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었음.
- 의장(○○○): 회의 내용들이 직능 대표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최종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만 논하겠다는 얘기임.
어떠한 이유든 평의원 내부에서 대학평의원회 존재 및 가치 훼손을 시킨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단톡방에서 모든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도출되는 것이 충남대학교의 민주적인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민주적이라는 말은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조교 의원들과 학생 의원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함.
- 의원(○○○): 직능단체별로 이해관계나 상황들은 이해하나 학생 의원으로서 단톡방 상황은 무섭게 느껴졌음.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대화를 해나가면 좋겠음.
- 의장(○○○): 모두가 학교를 위한 마음은 같으나, 자기의 직능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은 있음. 말이나 글이라는 것은 남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심하기를 바람.

■ 폐회